

# 철학은 과학기술시대의 등대

## 불확실성의 지배 속에 '깨어 있는 삶' 제기해야

신중섭

강원대 교수·철학

“오늘날에는 곳곳에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안개가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일에 제가 무언가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허버마스의 말이다.

안개를 걷는 데 기여하려는 그의 철학적 노력은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책임에 근거하고 있다. 인간은 철학의 영원한 주제이다. 철학의 인간에 대한 관심은 인간 내면에만 집중되지 않고,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외부적 요소도 사유의 대상이 된다.

철학은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단순한 기술과 예측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규범적 이념을 제시한다. 규범적 이념은 '인간다운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실을 평가·비판하고, 현실을 이념에 맞도록 변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심한 혼동과 불안에 빠져 있다.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미래가 불투명하고, 급속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담고 있는 함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읽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과학 기술과 현대

과학 기술이 인간 삶의 조건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은 불과 3백여 년 전이다. 인류의 긴 역사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짧은 기간에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 근거한 산업화는 지면을 휩쓸고 지나가는 강풍이 아니라 지형 자체를 바꾸는 지진에 비유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기술의 역사에서는 석기 시대는 기원전 2,400,000년에서 기원전 4000년까지, 철기 시대는 기원전 4000년에서 1000년까지, 수렵과 풍력의 시대는 1000년에서 1732년까지, 산업 혁명 시대는 1733년에서 1878년까지, 전기 시대는 1879년에서 1946년까지, 전자 시대는 1947년에서 1972년까지, 정보 시대는 1973년 이후로 잡는다.

1975년 가정용 컴퓨터가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컴퓨터는 예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 철학은 주로 산업 혁명 이후 일어난 변화가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인류 사회에 최초로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가지고 온 것은 1만년 전의 농업 사회이다. 3백여년 전에 시작한 사회적 정치적 조류를 수반한 산업 혁명은 지구에 두번째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3차 산업 혁명은 수치 제어 로봇과 진보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인공 지능이 주도하고 있다. 3차 산업 혁명은 2차 산업 혁명보다 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프레드킨은 우주의 창조, 생명의 출현에 이어 인공 지능의 출현을 우주의 제3의 사건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철학이 컴퓨터 혁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 산업화와 인간 소외 그리고 자연의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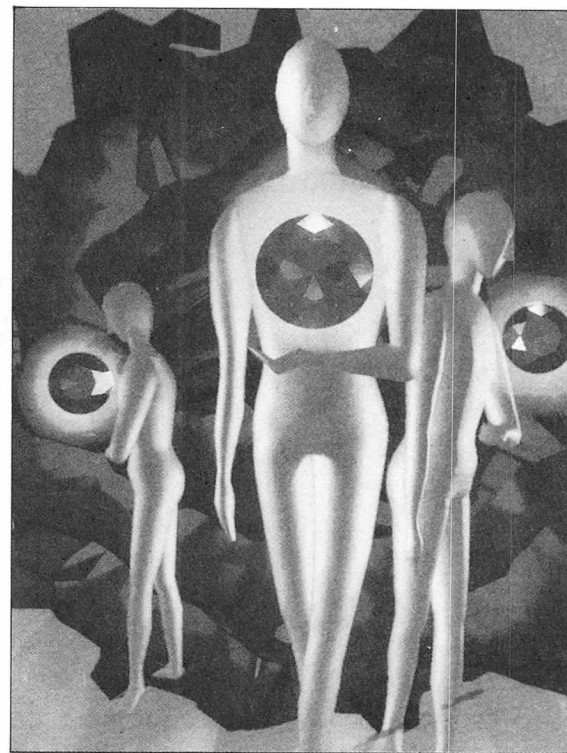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인류의 진보를 가져오리라는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마르크스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산업화가 초래한 인간 소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업화가 생태계의 파괴, 인류의 종말, 지구의 죽음을 가져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근대 산업화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재해석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철학적 접근은 주로 환경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에 집중되었다. 일부 환경 철학자들은 근대 과학의 철학적 기초를 자연관의 전환에서 찾았다. 데카르트-뉴턴적인 기계론적 자연관 위에서 근대 과학이 전개되었고, 근대 과학의 발전은 기술 혁명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기계론적 자연관을 환경 위기의 일차적인 원인으로 보고, 새로운 대안적인 자연관으로 '생태론적 세계관'을 제시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런 화이트 2세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환경 위기의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그도 환경 위기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파악하는

**급속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담고 있는 함언이 무엇인지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는 혼돈과 불안의 시대에 우리는 빠져 있다.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과학기술은 인류의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철학은 과학기술이 인류 공동 선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대가 돼야 한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게 될 인류미래 사회에 철학은 등대가 돼야 할 것이다.

생태론적인 세계관에서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들은 어떤 세계관이 역사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관이 등장하여 지배적인 세계관이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며,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생태론적 세계관'의 실현이 함축하는 바를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의 발달이 주도하고 있는 3차 산업 혁명은 인간과 사회, 경제 활동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실리콘, 세계적 통신 네트워크와 정보 고속도로, 사이버 스페이스와 가상 현실, 생산성 향상과 무한한 물질적 부, 자동 공장 과 전자 사무실이라는 신세계의 비전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컴퓨터 혁명은 정보의 생산과 전달의 수단을 급진적으로 변형시킨다. 나아가 가치의 체계, 세계관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표상을 바꾸면서 역사 진행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라키토프는 《컴퓨터 혁명의 철학》에서 “철학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인간 원리의 본질을 적합하게 표현하고 보다 완전하게

여기에 조응할 사회적 변화와 사회의 새로운 모델을 조성하고 사고하는 데 참여해야만 한다는 데 있다”고 말한다.

### 컴퓨터의 출현, 3차 산업 혁명의 출현

《노동의 종말》에서 리프킨은 “우리는 지금 세계 시장과 생산 자동화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거의 노동자 없는 경제로 향한 길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이 길이 안전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지 또는 무서운 지옥으로 인도할 것인지 여부는 문명화가 제3차 산업 혁명의 바퀴를 따라갈 후기 시장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동의 종말은 문명화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동시에 노동의 종말은 새로운 사회 변혁과 인간 정신의 재탄생의 신호일 수도 있다.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충격적인 예언을 하고 있다.

그는 만일 하이테크 혁명이 가져온 거대한 생산성 향상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기업, 최고 경영자, 하이테크 지식 노동자에게 전유된다면,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간의 격차는 전세계적인 사회 정치적 격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컴퓨터와 정보 통신 혁명의 결과로 과거

# 영혼이란 무엇일까

《놀라운 가설》을 읽고

김정일 · 김정일 정신과의원 원장

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이버 스페이스(인조 공간)라는 새로운 공간이 창조되었다. 물리적 공간, 사회적 공간에 이어 제3의 공간이라 불리는 인조 공간의 생성이다. 이 공간에는 국경도 없으며, 이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권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미 인조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우리는 컴퓨터를 통해 다른 나라 사람을 이웃보다 더 친숙하게 사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사고와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전통적으로 자연적 계기인 혈연, 지연, 민족, 언어 등에 기반을 두었던 공동체가 무너지고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철학의 과제

기술 문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오늘날, 철학은 '깨어 있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 기술 문명은 자신의 삶을 대상화하여 반성할 수 있는 '깨어 있는 삶'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과 그의 새로운 기술, 과학적 재창조가 보편적인 청사진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는 관념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쉴스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기술 과정의 진행과 방향은 실천적이고, 정치적인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되어야만 한다. 기술의 문제는 기술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철학적 성찰과 규범적 통제가 필요하다. 곧 기술과 관련하여 새로운 규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규범은 보편적이고 공개적인 의사 소통의 구조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과학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우리는 과학 기술은 자기 조절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다. 과학 기술이 적절히 통제되지 못할 때는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과학 기술이 인류의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지평에서 조정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과학 기술은 인류 공동선의 발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철학은 과학 기술의 그러한 역할을 인도하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 ❖

돈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황금만능주의의 사회가 되면서 눈에 보이는 것, 즉 물질의 가치는 자꾸 드높아지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는 자꾸 외면당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외면당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별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 사로잡혔다가는 물질의 양으로 다투는 숨막히는 이 경쟁사회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종교라든지 철학, 영혼, 가치, 이데올로기 운운하는 것들은 모조리 다 퇴조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 그래도 득세를 하고 있는 것이라곤 할리우드식 문화 상품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일 뿐이다. 그러나 할리우드식 문화상품은 최첨단의 영상을 통해 우리에게 감각적인 쾌락을 주고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은 자신의 신체 상이나 눈에 보이는 생활, 삶에 대한 끈끈한 애착에서 비롯된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만든 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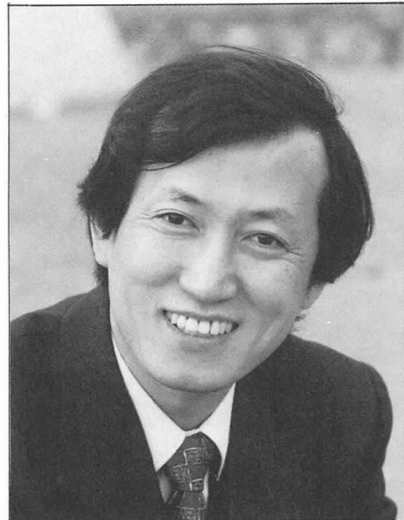
그렇다면 과거 우리를 지배해 왔던 보이지 않는 것 중심의 가치관(종교, 유교, 이데올로기 등)은 정말 어리석고 실질적인 삶에는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일까? 반드시 그렇다

고는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찾아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팽개치며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갑자기 무엇을 해야 좋을지 방향 상실에 빠지고 말았다. 갑자기 산다는 것 자체가 재미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진 것이다. 물질만능주의의 사회에서 물질을 충분히 갖추게 되자 더이상 의미있게 추구할 대상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인은 마약이나 모험, 일탈된 사랑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그 탈출을 몸부림치지만 그들의 내면을 차오르고 존재 전체를 휩싸고 도는 권태와 의미상실이라는 거대한 죽음의 기운을 뿌리치기란 용이치가 않다. 삶을 위해 온갖 방식으로 달려와서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이룩하면 천연한 삶이 기다릴 것 같은 데 오히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더이상 너는 삶을 위해 할 것이 없으니 이제는 그만 죽으라고 죽음의 유전자가 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권태와 의미 상실은 물질만 추구하며 살아온 현대인들에게는 마치 정신의 AIDS라도 되는 양 급속히 또 심각하고 위협하게 퍼지고 있다. 그렇다고 이미 시대적으로 무수히 검증을 받아 되물어낸 과거의 보이지 않는 가치관을 다시 끄집어 내어 되씹는다는 것은 이미 설득력도 그럴싸한 내적인 당위성도 없다.

날이 가면 갈수록, 자본주의 사회가 더 진행되면 될수록 창궐하는 이 정신의 AIDS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아



김정일씨.

마도 생명의 가치관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아무리 외면한다고 해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동안 나온 보이지 않는 무수한 철학이나 가치관, 영혼관은 아마도 상상으로나마 이 생명의 본성에 충실하려고 나온 것일 게다. 그러나 그들이 현대에서 설득력을 상실해 가는 것은 그들의 가치와 눈에 보이는 실증 사이의 거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크릭의 《놀라운 가설 The Astonishing Hypothesis》은 시사해 주는 점이 많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의식, 인간 행동의 동기를 눈에 보이는 뇌와 신경, 뉴런 세계를 통해 접근해 가려 했기 때문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해, 즉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치가 무시되어 왔던 수많은 가치들에 과학의 힘을 불어넣는 시도를 그는 하고 있다.

물론 그의 가설은 영혼의 세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단지 즐거움, 슬픔, 기억, 포부, 자유의지 등이 모두 신경세포의 작용임을 주장하는데 그쳤다고는 하지만 그의 이런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는 현대인들이 좀 더 의미 있게 자기 생명을 추스리는 데 어떤 도움을 주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프란시스 크릭 지음/과학세대 옮김  
한빛/A5변형/358면/15,000원

